

제목: 슬기로운 빅토리아생활

[조민선]

사회복지학과 202121611, 강원대학교

이메일: whalstjs71@naver.com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단기해외어학연수 참가 후기

들어가는 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오리엔테이션 때 같은 과 선배님이 어학연수로 꼭 넓은 사람들을 만나 좋았고 영어실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나가는 태도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에 같은 진로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와닿았고 어학연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줌으로 어학연수 프로그램 설명회 해주신 걸 듣고 현실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잘 다뤄주셔서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타국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캐나다를 1 지방으로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빅토리아 대학이 캐나다 서부에서 대표 세 개의 대학 중 하나일 정도로 명문대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1인실 기숙사로 되어있어 개인 일정에 맞게 컨디션에 무리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학교 근처에 있는 바다에 구경가는 걸 좋아하는데 빅토리아 대학은 바다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제게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워드: #빅토리아 #벤쿠버 #사진맛집 #UVIC

소요비용 약 900 만원-지원금 200 만원=약 700 만원

연수대학 소개

1. 첫인상

빅토리아공항에 도착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캐리어가 무거워보이는데 괜찮냐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스몰토크를 낯선사람에게도 선뜻 말 걸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 저녁때쯤에 도착했는데도 밝은 환했습니다. 캐나다는 여름에는 10시에 해가지고 5시면 해가 뜹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제일 덥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풍경을 보니, 평지가 많고 땅이 넓어서인지 단독주택이 많았습니다. 또한, 잔디가 많아 어디서든 피크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잔디에는 사슴이나 토끼가 종종 보였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길고양이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2. 기숙사

빅토리아대학 기숙사는 1인 1실로 되어있으며 층마다 라운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남녀 층간구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한국 담당자의 요청으로 성별로 분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방 밖에 1인용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은 다른 방과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뭘 떨어뜨리는 소리, 알람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벽간소음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릉원주대, 부산대, 대구보건대, 목포대 등 여러 대학교에서 어학연수 온 학생들이 많았기에 방을 넓게 2인실로 쓰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1인실을 선호해서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방 위치에 따라 창밖으로 조금 설산이 보이는 쪽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에는 티비도 있어서 OTT를 보는 학생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한국 기숙사처럼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세탁기와 건조기, 청소기 등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냉장고나 에어컨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더위를 좀 타는 편인데도 기숙사 안은 시원해서 선풍기 등은 따로 안챙기셔도 될 거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10분정도 걸으면 바다도 보이고, 20분정도 걸으면 한인마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브식당에서는 피자, 파스타, 감자튀김 등이 있으며 메뉴는 나름 다양한 거 같은데 느낌은 비슷합니다. 다 짜고 기름져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기는 닭고기와 소시지 종류만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밥만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디저트는 다양한 거 같습니다. 초콜릿부터 요거트, 과일, 아이스크림까지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학교처럼 학교 근처에도 다양한 식당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으로 나갔을 때 코브에서 못 먹는 한식같은 맵거나 건강식을 먹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3. 교내 프로그램

빅토리아 대학에는 Dorn Evening Activities나 4-Week Language and Culture Program을 CA라고 불리는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총 2개의 활동이 준비되어있으며 매 활동마다 참여의사는 자유입니다. 보통 2시부터 5시정도까지 한 활동을 하고, 7시부터 8시 반정도까지 또 다른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낮 활동은 시드니(캐나다), 비콘힐 등 실외 활동이 대부분이고, 저녁 활동은 팔찌만들기, 보드게임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영어자막으로 된 영화를 준비해줬습니다.

CA는 학생들에게 말도 먼저 걸어주기도 하고 같이 활동에 참여하기도 해서 다들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학생분은 CA랑 다운타운에 놀러가기도 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달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에도 학교에서 갖춰져있는 시설, 프로그램 등을 누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학연수생임에도 댄스, 와인 동아리 등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5만원 정도 지불하면 한달동안 자전거 대여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도서관 이용도 자유롭습니다.

본문

1. 교통편

빅토리아 대학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해 있으며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경유하여 빅토리아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과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학교까지는 우버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갈 수 있는데 너무 아침 일찍이 아니라면 버스 교통편이 잘돼있어 가격도 고려해봤을 때는 버스도 나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우버택시의 경우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침일찍 이동해야해서 택시를 꼭 타야할 때에는 예약을 미리 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빅토리아는 섬이기 때문에 전철이 없어서인지 버스 교통편이 자주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택시가 다운타운과 같은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진 않았던 게 신기했었습니다.

2. 수업

첫 날 레벨테스트를 통해 1~6중 레벨을 부여받습니다. 1이 가장 초급 수준입니다. 대부분 한국인 학생들은 1~3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수업 때 뭘 배우는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1, 2 레벨은 일상회화 정도, 3 레벨은 심화적인 수준의 일상회화, 4 레벨은 특정한 주제를 잡고 토론 등이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레벨 5, 6이신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업 초반에 수업이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레벨이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레벨을 바꾼 학생은 제 주변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벨테스트는 하루만에 이뤄지지만 계속해서 듣기, 쓰기 테스트가 수업에서 이뤄집니다. 또한 학생들 간 영어를 사용하여 말을 할 때에도 교수님께서 주의깊게 듣고 체크해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날 레벨테스트는 30분 간 특정 주제에 대해 글쓰는 시험과 20분정도 한 교수님 및 두 학생들과 대화를 진행합니다. 말하기의 경우는 일상적인 질문과 특정 사진을 통해 상황을 유추해 설명하는 방식과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테스트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며 느낀건데 글 쓰기의 경우는 분량보다는 단어사용에 따라 레벨이 결정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레벨 2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레벨 2에 학생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있다고 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1교시가 진행되고 2교시는 다른 교수님과 10시 40분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두 수업 모두 일상적인 질문을 학생들끼리 돌아가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위밍업을 하였습니다. 1교시 때는 숙제 점검하기, 팀을 짜서 문장 작문하기, 문장을 듣고 따라하며 외우기 등으로 게임처럼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일초도 알차게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시간이 빨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법오류도 정확히 잡아주셔서 영어를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구조, 시제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교시 때는 듣고 문제풀기 등 교수님께서 각 학생들을 살피시며 충분히 수업활동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느끼며 수업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고등학교 정규과정 속에서 배우긴 했지만 비교급, 최상급, 현재완료 등의 문법을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교시 때 거의 매주 한번씩 2분 스피치 및 시험이 이뤄졌습니다. 스피치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그림 묘사하기 등 매주 주제가 달랐습니다. 학생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그룹 내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대본을 보고 할 수는 없었지만 키워드 메모해둔 것을 보고 발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레벨 2반에서는 모든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다고 들어서 교수님마다 발표방식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영어말하기 시험을 봤지만 그때는 얼마나 막힘없이 시간안에 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점수가 1점단위로 매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학연수 말하기 시험에서는 0.1 단위로도 발표점수가 매겨졌고 발표분량과 매끄럽게 말하는 것은 물론 원어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음과 발표톤과 높낮이도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도 평가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교시 때도 캐나다 관광지를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를 했으나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수님께 평가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시험은 받아쓰기나 수업에서 배운 단어시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수업별로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는 보통 수업에서 다루는 교재 풀기나 특정 주제에 대해 글 쓴 것을 바르게 수정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레벨 2 다른 반은 매일 일기쓰는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3. 한국과 달랐던 점

우선 캐나다는 팁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직원의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가격으로 팁문화없이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에서 캐나다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일 적은 건 15%정도이고 본인이 선택해 팁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팁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팁을 안낸다는 건 이 곳이 정말 별로라서 다음에 올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과 달리 빅토리아 현지인들은 여유가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항상 자동차가 양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평일 낮에 관광지를 가면 사람이 많지 않은 것과 달리 빅토리아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거나 잔디밭에 앉아 피크닉처럼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운타운이나 밴쿠버에서 혼자 다니면 정말 위험합니다. 노숙자도 많아 길에 누워있거나 노상 방뇨로 길거리만 지나다녀도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말을 걸기도 하고 경찰차도 꽤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마약도 합법이라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피는 사람들이 많고 마약에 취해 축 늘어져있는 사람들도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4. 처음 생긴 일본 친구들

영어수준, 타문화를 접하며 생긴 변화는 당연하고 어학연수를 통해 처음으로 일본 친구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친구를 사귀기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어학연수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일본 친구와 친해졌고 덕분에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친해질 수 있었습

니다. 제가 영어나 일본어를 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서로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가끔 언어장벽이 생겼지만 번역기를 사용해 노력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숙제도 하고 기숙사 옆 펍에서 칵테일도 마시고, 다운타운에 가서 치맥집도 가고 라운지에서 한국예능도 보며 쌓았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라서 한국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일본과의 문화, 생활 차이를 알아가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국적이 달라 자주 보진 못하겠지만 나중에 일본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할 것입니다.

5-1. 빅토리아 여행지

1) 부차드 정원- 전체 크기는 600만평이 넘는다고 하지만 1시간정도면 다 둘러보는 것 같습니다. 비콘힐보다 확실히 꽃도 다양해서 사진찍기에 좋습니다. 표는 5만원정도하고, 버스로 왕복 2-3시간 정도 걸리고, 주말에는 불꽃놀이를 하니 인터넷으로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해틀리 성- 성을 둘러싼 정원과 덩굴이 인상적입니다.



3) 국회의사당- 웅장한 모습이 인상적이며 밤에는 수많은 불빛이 건물을 감싸서 예쁩니다. 내부 투어도 가능합니다.



4) 미니어처 월드- 아기자기하고 상가, 전쟁 등 다양한 컨셉의 미니어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2만원정도고 1시간이면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5) 빅토리아대학 아트갤러리- 시즌마다 주제가 바뀌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산불을 주제로 그림이 전시되어있었습니다. 15분이면 충분히 둘러볼 정도로 전시관이 크진 않지만 무료니까 다운타운 갈 때 같이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2. 밴쿠버 여행지

1) 밴쿠버 아트갤러리- 제가 갔을 땐 흑과 백을 주제로 해 두가지 색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선셋비치- 석양이 저서 너무 예뻐고 한국과 달리 잔잔한 바다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3) 아쿠아리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물고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아기 해파리부터 화려한 해파리까지 볼 수 있어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4) 가스타운 증기시계- 시계 벽이 투명해서 안에 다보여서 흥미로웠고 증기시계를 볼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사진 한장 못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아침 일찍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그랜빌 아일랜드- 이색적인 항구 느낌도 있고, 그쪽에 랍스터 샌드위치가 유명해서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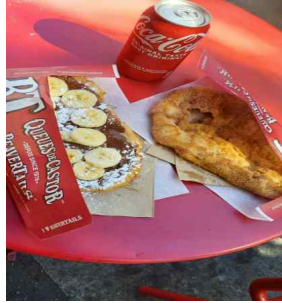


6. 맛집

1) 팀홀튼-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이스 캡을 강력 추천합니다.



2) 비버테일- 약간 호떡같이 얇은 빵에 다양한 토핑이 올려져있는 간식입니다. 바나나와 누텔라 들어간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오리지널은 시나몬만 뿌려져 있는데 쉐러스같은 느낌이라 맛있었습니다.



3) 잼카페- 브런치 식당입니다. 핫케이크는 평범했는데 에그 베네딕트가 특히 맛있었습니다.



4) 마블슬랩 크리머리- 아이스크림에 토핑을 올려 섞어주시는데 맛은 있는데 가격이 꽤 비쌉니다. 8천원정도 합니다.



5) 레드피쉬 블루피쉬- 항구를 바라보며 먹는 피쉬앤 칩스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엄청 맛있는 생선까스 느낌입니다.



맺음말

학교에서 어학연수라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밴드를 통해 질의응답 도와주신 오주현 국제화팀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밴드를 통해 많은 대학에 대한 정보 등 사전정보를 주신 것들이 어학연수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학연수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같은 반 친구들과 가르쳐주신 닐 교수님과 제니퍼 교수님 덕분에 수업도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